

1996년 9월(제12호)

운수마을 21



○발행처 : 운수마을 21 편집부 운수마을21

차 례

1. 통일시대를 이끌고 갈 힘찬 마음을 다지는 철도 노동자. 1 - 5
2. 주장/철도의 날을 현업직원의 날로 돌려받아야..... 6 - 8
3. 운수마을 이곳저곳 ----- 9 - 11
4. 시사칼럼(의사상 보상금 늘여야/ 8.15특사) ----- 12 - 14
5. 노동법 상식/수원지구역 연합지부 범대위탈퇴 ----- 14 - 15
6. 나도 한마디(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노동자잡는
괴물로 성장할 것/불면/고객중심.....) ----- 16 - 20
7. 어린이의 천사(엄마,아빠) ----- 21
8. 울 끝은 소리(평화와 통일, 노동자가 책임질 때) ----- 22
9. 알아 두면 좋아요(각국의 복지비) ----- 23
10. 활기찬 하루를 위하여(간질환) ----- 24 - 25
11. 詩 감상(두편)----- 26
12. 산으로 바다로 출발(사랑도 지리망산) ----- 27
13. 문화가 산책(추천영화/더록)----- 28 - 29
14. 광고 ----- 30

통일의 시대를 끌고 갈 힘찬 마음을 다지는 철도 노동자!!!

-- 철도의 날을 맞이하여 --

철도 노동자는 외세의 침략과 함께 출현했다.

철도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함께 시작되었다. 19c부터 조선으로 진출한 러시아, 미국, 프랑스등과 항상 조선을 노리며 때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이권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1896년 경인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차지함으로써 시작된 철도의 역사는 경의 철도 부설, 서울 전차 부설 등 급격한 팽창을 보였다.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을 통해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된 일본은 광산물, 쌀등을 일본으로 수송하고 만주로의 진출을 위해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즉 일본의 침략과 철도 발전의 역사가 궤를 같이 하게 된 것이다.

1910을 거치면서 일본은 중소자본을 앞세워 조선 민중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진출로 노동자의 수는 점점 증가했지만 노동조건은 극도로 나쁜 상태였다. 특히 임금 수준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2분의 1내지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비인간적 대우, 민족적 차별 때문에 이미 파업 등의 격렬한 투쟁이 있었다.

철도 노동자는 독립운동과 함께 성장했다.

1919년부터 1년이상 계속된 3.1운동은 이후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약 2백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공식 집계만으로도 7500여 명이 피살되었고, 4만 6천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약 1만 6천 명이 부상했다.

3.1운동은 비록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운동이 되지 못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이후 독립운동의 중요한 방향이 정해졌다.

첫째, 소위 민족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고 3년형을 받았다가 일본의 회유정책으로 형기 전에 모두 풀려난 데 반해 시위에 참여한 민중들의 피해는 컸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유관순 열사는 목숨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로써 민족해방 운동의 주체가 노동자, 농민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3.1운동은 무장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의 폭력 진압과 수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셋째,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방법론들이 나타났다. 만주, 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 전쟁론과 일부의 외교 독립론이 비교적 선명히 구분되었고, 다른 한편 실력양성론, 독립준비론에 근거한 계량주의 노선이 나타났다.

일제지배 초기에는 공장 노동자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1919년 약 4만 2천여 명, 1928년에는 약 8만 8천 명으로 증가해서 1936년의 통계에 따르면 남녀 종업원 수가 약 19만 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임금은 일본인 성인이 하루 2원 32전을 받는데 비해 조선인 성인은 1원을 받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다. 노동 시간도 조선인 노동자의 46.9%가 12시간 이상 노동한 데 반해 일본인 노동자의 0.5%만이 12시간이상 근무했다.

나쁜 노동조건과 특히 민족간의 차별 대우로 노동자들의 의식은 급격히 높아졌고 따라서 노동쟁의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1920년대에는 노동쟁의가 활발해져서 조선 총독부의 통계만으로도 1929년대에서 1930년 사이에 총 891건에 조선인 노동자만 7만 3450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노동쟁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3.1운동이후 거세게 밀려온 사회주의 사상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의식,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를 몰아내고 이 땅에 양반의 세상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는 노동자, 농민들을 각성시키는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전체 노동자 중 철도노동자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기간 산업을 책임

지고 있음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 점차 예고되고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 만주 사변,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병력과 군수 물자의 주요 공급로인 철도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선발 시험은 엄격했다. 열차 1량의 탈선사고나 운행 지연이 가져오는 영향은 전시체제에서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열차의 수리 지연, 운행 속도 지연 등의 소극적 투쟁부터 철로 파손, 철로 폭파를 위해 무장부대와 동화하기 등의 적극적 투쟁이 다방면으로 전개 되었다.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핏줄처럼 건설된 철로를 따라 해방의 길로 철마는 열심히 달리고 있었고 해방의 격변기에 철도 노동자들의 빛나는 투쟁을 예고하는 기적 소리를 힘차게 울리고 있었다.

철도 노동자는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선봉이었다.

자주독립국가를 이루고자하는 민중의 뜨거운 바람 속에 해방의 기쁨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45년 9월 8일 인천에 첫발을 내디딘 미군은 남한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천명하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만든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부정하고 탄압했다. 이제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외세를 몰아내야 하는 역사적 임무가 다시 이 땅의 민중의 어깨위에 얹어졌다.

46년 3.1절 기념식부터 폭력적으로 부딪힌 미군정과 조선 민중은 10월 항쟁을 거쳐 갈등이 전면화되었다. 해방이후 처음 맞이한 3.1절을 민중은 거대하고 집단적으로 기념식을 하면서 새조국 건설 의지를 다지려 했고 미군정은 이것을 불순하다고 규정하며 무력적인 해산을 감행했다. 이후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발전한 **10월 항쟁의 촉발제는 철도 노동자의 투쟁이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철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침몰의 노후화를 방치한 채, 태평양 전쟁 중에 정비가 불량했던 노선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다가 석탄 부족, 차량 수리 공장의 조업 중지 등 악조건이 겹쳐서 사고가 빈발했으며, 전체적으로 노동조건이 비참

함의 극을 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1946년 9월 15일 철도 노동자들은 미군정에 6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1 주일 이내에 회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내용은 노동자에게 1일 4흡, 가족에게 3흡의 식량을 배급할 것, 일급제 반대, 해고, 감원 절대 반대, 급식(점심 식사)를 종전대로 계속할 것, 민주적인 노동 입법의 즉각적 실시등이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미군정은 간단히 거부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9월 23일 부산 지구 7,000여 명이 전면파업을 하면서 드디어 9.24총파업의 불길이 당겨졌다. 이 파업으로 남한 전역의 철도 수송은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인쇄, 전기, 체신, 토건 등 전 부문으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기 위한 시민, 학생들의 시위가 10월 1일 대구에서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민 1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민, 학생들에게 또다시 발포함으로써 10월 항쟁은 전국적 범위로 번져나갔으며 미군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시위로 발전했다.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열망과는 달리 미,소는 자신의 이해 관계속에서만 한반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급기야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방침을 굳히고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기고 만다. 유엔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이름을 빌림으로써 미국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속셈이 노골화되자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거는 투쟁을 벌림으로써 이것을 저지하려 했다.

1948년 1월 6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민중은 2월 7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산하 30만 명의 남한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 갔다. 이 날 새벽을 기하여 서울 영등포, 대전, 군산, 대구 등지의 체신관서에서 기계파괴, 전화, 전신 절단 사건이 나타나면서 남한 지역의 통신망은 순식간에 마비 되었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전, 대구, 안동 등 주요 철도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기차 운행을 중지 시켰다.

2.7 구국투쟁에 이어 제주도 4.3 봉기를 통해 민중은 단일 정부에 대한 열망을 온 세계에 표출했다. 그러나 막강한 경제, 군사적 힘을 지닌 미국은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8.15일 이승만 정권을 출범시켰다.

철도 노동자는 21c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일제 시대에 건설된 철로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철도, 어떤 노동부문에든 없는 3중 간선제에 억눌리고 있는 철도, 하지만 선배 철도노동자의 빛나는 투쟁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투쟁은 88년 기관사 파업을 시작으로 다시 불붙었다. 94년 전기협 투쟁은 많은 아쉬움과 희생을 낳았지만 국민들에게 철도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철도 노동자의 힘을 과시한 싸움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합비 인상반대라는 요구로 다시 결집하고 있다. “노조민주주의 실현과 불법적 조합비 인상 철폐를 위한 전국철도 노조 범지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에서도 목표가 드러나듯이 이제 직선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싸움은 과거보다 아래 조합원의 힘을 더 많이 발동시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조합원들이 서명이나 집회 참석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제 노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철도 노동자들이 한 몫을 함으로써 그 역사적 임무를 시작하자./

갈라진 한반도의 허리를 우리가 앞장서서 잇고 저 백두산까지, 나아가 만주, 시베리아까지 우리의 철마를 힘차게 몰아 나아 갈 것을 철도의 날에 다시 다짐해 보자 !!!!! 운수마을21

◆ 주 장 ◆

철도의 날을 현업직원들의 날로 돌려 받아야

오는 18일은 제97주년 철도의 날입니다. 비록 외세의 침탈을 위한 교통망 확보를 위한 철도부설이 었지마는 조선말 개화 정국 이후 지금까지도 그 역할의 차이는 다소 있었으나 국가 대동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항공발달로 다소 위축된 철도라지만 21세기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적 역할과 아시아, 유럽을 잇는 출발지로서 한국철도의 자리매김은 한층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철도공사 한국철도 원년의 해가 될 뻔 하였으나 철도공사화의 무기연기로써 97회째 기념일이자 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고위 간부를 위한 기념일 행사

97년이라 하면 어느단체나 국경일, 기념일보다도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철도만의 고귀한 의미있는 생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며 내일과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기념일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일개개인의 생일보다도 못하게 기념되어 온 날이 그간에 이루어 졌던 철도의 날이라면 지나친 편견일까요?

우리는 올해도 수건 한장이나 비누 서너장을 받고 철도의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철도청 운동장에서 고위공무원들만 참석한 제97년 철도창설 기념일 행사장면 장면을 30초정도 보며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며 표창장도 근속표창이나 무사고 달성 기관사 표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의 5급이상 공무원이 대부분 수여함을 다음날 신문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기야 철도노동조합에서도 창립 기념일이 언제인지 몇주년인지 아는 조합원은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철도노동조합에서도 창립기념일 행사는 회관이나 조합에서 성대하게 치르기는 합니지만 전직 위원장은 초대해도 아직까지 현장 조합원은 철저히 외면한채 지방본부 임원 이상의 높으신 분들만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철노창립일, 1. 18, 49주년).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

이제부터라도 철도창립 기념일은 전직원 특히 현업직원들이 주체로 하는 범철도인의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의 진짜 주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들도록 제도적인 뒷바침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음 같아서나 경영권, 인사권, 징계권등 참여를 당장이라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지만 어용철노와 관료적인 철도청이 있는 한 은하철도 999에나 나올 듯하여 일단 여기서는 유보하기로 합시다.

우리 직장내를 살펴보면 몸에 맞는 제복착용, 직무 사상사고 없는 직장, 하급자를 경멸하는 분위기의 쇄신, 뒷거래 없는 인사정책 다만 몇일 만이라도 휴일을 확보, 잠자리의 침구류 소독 및 청결유지, 제새끼 잡아먹는 감사중단, 근무시간 외에 새마을 사업 중지등 경영참여나 임금인상이 아닌 작은 것들이더라도 세심한 배려와 근무여건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송원이나 보선원들의 순직사고 사유가 늘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철도청의 인적·물적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지않고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절규가 프레스 공장에서가 아닌 21세기 고속철도 시대를 앞둔 철도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으니 철도의 날 행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철노를 건설하지도 못한 현상황에서 공허한 염불로 들리겠지만 진정한 철도인을 철도의 주인으로 우뚝 세우지 않고서야 진정한 철도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철도공사화가 연기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철저한 이익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인력감축, 인건비 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강도의 강화로 지금보다도 오히려 우리들의 근로조건은 악화될 것이며 직종간 직위간 신분간의 분열로 화목한 직장 보다는 각개약진의 경쟁장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철도를 위한 우리들의 철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당연히 민주철노를 이룩하여 노사간 대등하게 단체협약과 노사협정을

통한 제도적 마련과 제도적 집행을 담보해내는 조합원들의 힘을 토대로 하여 일상활동을 함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철노 민주철노를 외치며 기다리자면 그날이 결코 그냥 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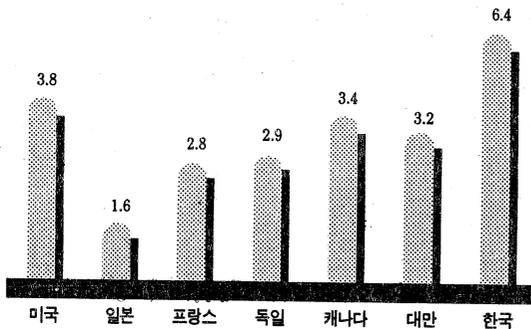
나로부터 주인이 되자

나부터, 내주위로, 내직장으로 눈을 돌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후배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선배 철도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의 함성을 되물려 주지 않도록 내주변부터 올바른 사고와 실천하는 행동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의 날을 내생일이나 우리 가족의 생일처럼 아끼고 소중히 하는 길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윤수마을21**

◇ 주요국 물가상승률 비교 ◇

87~94년 평균(단위 %)



*자료: 재정경제원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난 87~94년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4%로 조사돼, 일본의 1.6%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7월까지 4.2%의 물가상승률 기록, 연간 억제선(4.5%)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수마을 이곳 저곳

철도 노동자 결의 대회 열려

지난 8월22일 용산역 광장에서 전국철노 범지부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철노개혁을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노조의 조합원등 철도 민주화를 위한 지원연대 소속 민주조합원과 함께한 결의대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치러졌다. 집회를 마친후 용산역에서 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에 조합비 인상에 대한 항의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탄을 보내는 도보행진이 있었다.

갈수록 공고해지는 조합원들의 단결력이 돋보인 금번 장외의 결의대회로 조합비 인상철회와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요구를 목적으로 시작된 범대위 투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보인다.

향후 범대위와 철도노동조합의 맞대응이 주목된다 하겠다.

운할 하계 수련회 성황리에 마쳐

민주철노 운수분야 활성화를 위한 모임에서 주최한 하계수련회가 8월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대성리 유스캠프타운에서 개최되었다.

회원과 회원가족등 모두 84명이 참여한 수련회에서는 물놀이, 공동체놀이, 단결의시간, 운동경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속이 다른 동료회원간이나 가족간의 서먹서먹함도 잠시였고 짧은 기간동안의 만남과 헤어짐에 모두 아쉬운 수련회를 마쳤다.

특히 많은 가족들의 참여로 철도 직장에 대한 이해와 민주철노 건설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등 부수적 효과까지도 거두었고, 또한 최초로 시도한 운할의 하계수련회가 재정적자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며 내년을 기약하고 아쉬운 하계수련회를 마쳤다.

진퇴양난의 철도노동조합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노동조합이 창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청과의 철저한 유착으로 조직적 기반을 넓히고 있는 철노이기에 조직내 다소 시끄러움이야 있었지만 그런대로 순항을 해왔었다. 더우기 94년 6.23 파업이후 민주파의 제거로 무소불위의 횡포와 철저한 어용으로 일관되게 집행부를 이끌어 왔으나 96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단행한 조합비 인상으로 본의 아니게 화를 자초한 것이다.

조합비 인상으로 현장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철저히 외면했던 철노와는 달리 민주를 표방하며 민주노조의 싹을 키워왔던 지부를 중심으로 조합비 인상철회와 임시대의원 대회소집을 요구하는 전국철노 범지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명을 받아 조합에 건의한데 이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역소장과 지방청장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세차례에 걸친 집회를 통한 대내외적 여론확산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여섯차례에 걸친 속보발행과 수건판매 그리고 국회방문 등 다양한 투쟁활동을 통해 그간 다소 위축되었던 집행력과 현장분위기의 함양과 쇄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철도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이후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으며 조합비인상 철회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범대위의 다양한 투쟁활동으로 대외적기관 즉 정부와 청으로 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8월16일 대전에서 지방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집행 위원회까지 거쳐 범대위 소속지부장들의 조직징계 절차를 진행하던 지난달의 무모함과는 완전히 방향전환을 한것이다.

임시대의원대회 이후의 조직적 분열을 걱정하며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머리에 여념이 없는 철노를 바라볼때 현장조합원들의 뜻에 기반을 두지 않는 어용노조의 말로를 보는것 같아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마음 지울길 없다.

서상우 동지 조합원 자격 획득

지난 5월 본부조합으로 부터 조직징계를 받아 제명되었던 서상우(의정부역근무)동지가 조합원 신분유지확인을 위한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본부조합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서동지본인이 직접 법적투쟁을 벌여 조합징계 사유의 불법부당성을 주장하여 재

판부로 부터 인정을 받아 조합원 신분을 재획득한 것이다. 금번 소송으로 그동안 마구휘둘러 왔던 철노의 만병통치약 조직징계가 정상궤도를 달릴것으로 기대해 본다. **운수마을21**



환소스자백백 결단 영남

세계인의 공통언어 미소

미소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언어이다. 미소는 경계심을 풀게 하고, 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미소는 마음의 창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빛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며, 희망과 안정감을 준다.

첫인상은 사람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을 모든 이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나서 나는 대화가 그후 서로의 교우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간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은 확신감과 자신감을 준다.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최고의 것에 눈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시사 칼럼 ▣

‘의사상’ 보상금

늘려야

최근 들어 치안상태가 몹시 불안하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터에 공권력조차 범죄인들의 공격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이 피살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뒤에도 경찰순찰차를 뺏기거나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책임지는 치안상태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공권력이 도전받는 상황이니 만큼 근무중 실탄을 채운 총을 차도록 한 경찰청의 조치가 나올 법하다. 다만 총기 사용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경찰관이 정당방위의 기준에 맞도록 총기를 사용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모름지기 경찰관은 다른 수단이 없는 최후의 순간에 총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럴 때라도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것을 써야 옳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기를 잘 다루는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에도 순찰차를 빼앗은 범인을 뒤쫓다 총을 잘못 쏘 무고한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가 있었다. 지금까지 경찰관의 총에 잘못 맞아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시민은 적지 않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데는 여러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가지는 인력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선 경찰관서에 적정한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상급부서에 인력이 몰리고 파출소 등 일선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래서야 원만한 치안행정을 펼 수 없을 것이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살될 때도 인력이 부족해 그 경찰관 혼자서 파출소를 지키다가 횡액을 당했다. 그러나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국민들이 솔선해서 협조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정신을 가져야 마땅하며, 범행의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범인과 맞서 싸워야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공권력을 돕는 이런 의로운 일에 선뜻 나서서 사람은 드물다.**

이런 점에서 **성폭행범을 잡으려고 용감하게 나섰다 숨진 최성규 씨의 죽음은 의로운 시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의 젊은 아내와 어린 딸에게 정중히 위로의 말을 보낸다. 최씨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진 이를 기리는 사회 분위기가 부족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의사상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액수로는 유족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시급히 보상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전.노일당 사면 예고-8.15 특사

정부가 이번 광복절을 기해 대형 비리 연루자들인 김조희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엄삼탁 전 병무청장 등 11명을 특별사면하거나 복권시킨 조치는 현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힐 것이다.

이 조치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크기의 허탈감과 도덕적 허무 의식을 가져다 줄 지, 또한 현 정부의 도덕적 기반에 얼마나한 구멍을 안겨다 줄지 측량하기 어렵다.

울곡 비리, 슬롯머신 사건, 군인사 부정, 은행 부정대출 등은 나라를 분노케 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땅에 곤두박질치게 한 대형 부정과 비리의 당사자들이 어찌 일반 잡범들보다 빨리 법의 울가미에서 벗어나고 어엿하게 공민권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가 사정의 칼날을 높이 들어 이들 굼직굼직한 권력형 비리를 들

취했을 때, 여기에 보낸 국민의 환호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목격하면서 싸늘한 침묵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요 사정을 통해 잡아들인 비리 인물 상당수가 그동안 너무 쉽게 풀려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정부의 사정 의지에 국민 일반의 의구심이 있어 왔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지난해에 광복절 대사면과 올해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보완하는 의미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는 궁색한 변명을 앞세워 이번에 서둘러 중량급 비리 인물들에 '면죄부'를 준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이제 정부의 사정 의지 및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의지 모두를 의심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특사로 인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재판을 서둘러 끝내고 풀어줄 것이라는 외신의 주장이나 시중의 유언비어들이 설득력을 더해 가리라는 느낌이다.

이 모든 조치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될 개연성도 물론 크다. 정치는 타협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범죄나 부정과의 타협은 안된다. 그것은 야합일 뿐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진행중인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과 그것의 집행에 쫓겨 있다. 그러나 제1심 선고도 있기 전에 이미 재판을 요식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뉴욕타임즈]등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마지막 보루마저도 안전하지 못함을 이번 5.6공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를 통해 이미 확인 하였는지도 모른다.

‘개혁’과 ‘역사 바로세우기’가 여전히 현 정부의 추구하는 가치라면 이번 광복절 특사가 그에 역행하는 조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치와 행정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윤수마을21

※ 노동법 상식

노개위 노동관계법 제도 개선 논의 현황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상급/전면 쟁점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단 복수노조 허용시 상급단체만 허용할 것인지, 전면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고 있으며

복수노조 허용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법상 정치활동금지 삭제

노동조합법상에서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삭제는 합의가 가능하다. 기업내 정치활동 불허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 폐지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법상의 3자개입금지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3자개입폐지는 경영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바 신중하게 접근해 대안을 연구중이다.

해고노동자 지위문제

현행과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한정하되, 이를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예컨데 법원에 제소한 경우는 제외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의 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직장폐쇄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부분직장폐쇄금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리하면 되므로 별도로 법안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경총의 의견 또한 같다.

쟁의행위 정의규정에서 직장폐쇄를 제외시키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개정 작업이 검토기로 했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합의가능성이 높다.

일방중재 및 직권중재

일방중재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직권중재와 관련해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긴급조정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민주노총), ILO 기준에 의한 필수적 사업에 한해서만 직권중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긴급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경총 수정안) 등 여러 종류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교사의 직무특수성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별도법에 의한 단체로 단결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때 노조명칭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조법의 적용(상급단체가입, 부당노동행위구제, 단체교섭권의 완전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로 단결권을 허용하되, 노동조합법의 취

지를 가능한한 별도법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당연히 노조명칭을 사용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은 민간노동자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체행동권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윤수미 21

수원지구역 연합 지부장 범대위 공식탈퇴

수원지구역 연합지부장(지부장, 김현철)이 조합비 인상철회와 임시대의원 대회소집요구를 위한 전국철노 범지부대책위원회를 공식 탈퇴하였다.

그동안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조직운영과 지부일상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으나 금번 범대위 참여로 흑시나 했었다.

철노 서울지방본부의 압력과 김지부장 본인의 한계로 범대위를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 탈퇴를 위한 지부 집행부 회의가 모처럼 열렸었는데 범대위 활동을 위한 집행부 회의에는 얼굴 한번 안비치면 임원들까지 참석하여 대다수 관심있는 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고 보면 수원지구역 연합지부의 운영 실상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해프닝으로 치부해야 될 것 같다.

윤수미 21

나도 한마디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시간제」

“노동자 잡는 괴물로 성장할 것”

‘철노민추진위 사무국장 이철의’

[노동자 신문에투고된 글]

최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시간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를 계약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공감대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다.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단서조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노동자들을 좀더 부려먹지 못해 안달하던 사장들이야 귀가 번쩍 트일 이야기이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될 이야기라고 판단한다.

그나마 조직된 노동자들이야 노동조합을 통해 막아낼만큼 막아내기도 하고 저항도 한다고 하지만 조직도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조합이 있으나마나 한 어용노조의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있으나마나 한 근로기준법이라고는 하지만 힘 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래도 유일하게 버틸 언덕이었는데 그 허약한 둑에 구멍이 나고 있다. 지금이야 작은 구멍이지만 한번 터지면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노동자들이 없으리라고 잘라 말 할 수 있을까?

철도 노동자들은 이미 94년에 변형근로시간제와 맞붙어 한판 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그 결과 6년간을 공들여 세우고 다듬었던 조직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투쟁속에서 단련된 우수한 조합간부들이 궤멸되는 피해를 입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예 법으로 변형근로시간제를 보장하겠다고?

정부와 사장들이 제정하겠다고 우기는 변형근로시간제는 시장에서 골라잡을 수 있는 옷 가지가 아니다. 한번 제정되면 좀처럼 폐지하기도 힘

들 뿐 아니라 두고두고 노동자들을 잡는 괴물로 성장할 것이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임금 구조를 왜곡시킨다.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주44시간제 혹은 월 1백92시간제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판단하는가? 한번 기준이 왜곡되면 또다른 변형을 낳게 마련이다. 그게 세상 모든 일의 이치이다.

철도처럼 하루 24시간 잔업 철야를 해도 수당 한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이 없으면 적당히 놀려 놓고 엇그제 일한 노동시간을 까면 그만이다. 휴일을 하루도 주지 않을 수 있다.

한달에 1백92시간의 노동시간과 적당히 책정된 초과근무시간 외에도 모두 휴일이라고 강변할 수 있다. 노동시간의 계산 방식이 왜곡되고 슬한 유형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들이 머리만 굴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주 휴일은 무조건 놀아야 한다고? 무슨 말씀! 단체 협약을 지킬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매년 단협 갱신 때 법을 들먹이는 사장들에게 항상 수세적으로 방어하기 바쁠 것이다. 조직이 약해지거나 어용 집행부가 들어서면 한없이 개악되고 원상회복을 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노조도 없는 영세규모 사업장의 불쌍한 노동자들은 무한착취에 모두 내줄 판국이다. **그래도 변형근로시간제를 내줄 수 있는가?** 윤수파 올21

불면

- S역 역무원 -

이 공상 저 공상하는 신체 구석구석에 마귀처럼 달라붙는 요놈의 피곤, 그러나 난 이 피곤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 정체도 물론. 왜냐면 나는 몇년을 철야생활을 해왔으니.....

이런 나에게 초겨울 아침 밤도둑처럼 살짝이 오는 첫서리 같은 불면이 찾아왔기에 피곤...불면...피곤...불면

과히 사전적이지는 못할 것 같은 아이러니!

우리네 삶에는 때로 相剋的 아리러니가 가장 강력한 해답으로 굳림하는 수가 있다. '피곤속의 불면'인 '풍요속의 거지'니 '군중속의 고독'이니 하는 기타 등등의 어울림이 天生緣分처럼 되어지는 다수의 예들처럼 말이다.

科學的으로 첨단화되고 고도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서도, 아니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더 수학적 이치나 검증된 지성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희귀한 일들이 많다.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하려 함이 아니라 불면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따지고자 했으므로 필름을 다시 첫머리로 돌린다.

감나무 꼭대기에 까치밥으로 남겨진 몇안되는 짧은 땡감이 때아닌 서릿발에 그 독성이다 삭아지듯, 마치 마술에 걸린 박쥐가 어여쁜 공주의 입맞춤으로 왕자로 되돌아 오듯, 그 날것 그대로 삼킬수 있을 만큼 괜찮은 맛을 내는 감의 妖術的 변신처럼 그렇게 이 불면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 때가 되면 삭아지는 요소중의 하나라면 좋으련만 아니면 이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건너 뛸때의 찰나적인 진통쯤이라면 또 참아 보련만.

아무래도 쉬이 삭아져 줄 것 같지가 않다. 내 기억으로는 정신적 身體的으로도 미성숙기였던 10대때부터 그시기의 아이들에 비해서 이러한 증상이 심한 편이었으니까.

때로는 그랬다. 초저녁부터 또는 밤만되면, 아니 누울만한 공간만 주어지면 어디서든 自動적으로 눈꺼풀이 내려지는 친구나 인간동료들을 더러 '動物性'만 남았다고 매도하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쉬이 잠이 잘드는 것을 부러워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動物性' 그 편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또한 이기적인 위로심리가 강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그럴듯한 구색 갖춰 이 불면의 고충을 설명하기 보다는 차라리 한마디의 감정으로 요약정리하는 편이 훨씬 신사적일 것 같다.

그래, 이 불면은 누명으로 왕명에 의해 死藥을 목전에 둔 충신의 통한처럼 희망없는 참담한 갈다고나 할까. 이 비유가 과하다고 한 인간동료가 비난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한술 더 뜰 것 같다. 간신배에 눈을 잃고 지각을 잃는 임금에게 하사받은 死藥보다도 열배는 더한 첫사랑의 고베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정신고문"이라고

문수비움2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되어 가고 있는가?

최근에 서울열차사무소내에는 패트를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되어 친절 우수공무원은 지방철도청장 표창, 60점 미만 공무원이 지방청 교육이라는 공문이 게시되고 있다고 한다.

듣고보자하니 우리들의 생각에는 과연 그 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사를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철도청 중점 추진사항인 고객 중심 경영혁신의 경우 내.외부 고객 만족을 최우선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내.외부 고객을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있는지 서울열차사무소 열차승무원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본선열차의 경우 시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여름에서 지금까지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는 냉방관계를 들 수가 있다. 현재의 냉방은 새마을호를 제외하고는 냉방바람이 직접 손님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어 냉방기가 설치된 곳은 춥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더워서 승객들의 불편이 대단하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여름시작부터 끝날때까지 거의 반년이 상 승무원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또한가지 예를 들면 무궁화 특실 전용열차나 침대차에 먹을 식수가 없어서 승객들은 “운임,요금은 새마을 보다 비싼데 식수가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 며 승무원에게 이구동성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부고객 쪽인 승무원에게는 고객중심 경영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비둘기호의 방송실에는 냉난방도 없을 뿐 아니라 승무원들이 앉아서(신형무궁화호 제외)있을 수도 없도록 되어 승무원들이 도착역까지 전혀 앉을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어 불편이 커서 이의 시정을 수차례 걸쳐 사무소등에 건의하였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추락사고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특히 야간에는 장대열차의 경우 흡 조명이 어둡고 여객전무, 차장이 나누어 보아도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실정이다.

만약 여객이 내리지 못하면 승무원이 사비로 택시비용을 주어 처리하는 실정이며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문책이 들어오고 승무원이 사비로 해결하면 잘 처리 했다고 하는 형편이다.

위에서 열거한 예는 단적인 것을 몇가지 적은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인사만 잘한다고 친절공무원, 불량공무원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내.외부 고객의 불편한 점을 고쳐 외부고객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내부고객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윤수마을21

☺ 어린이의 천사 (엄마.아빠)

아이를 똑똑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바른 독서로 이끌어 주세요.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세요.

아이는 소속감을 가질 때 읽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부모에게서 소중한 존재이고, 부모가 자기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느끼도록 해주세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집안일을 함께 하며,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는 일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읽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이제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는 커다란 기쁨을 느낍니다. 읽기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글을 읽는 것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부모님은 기분 좋게 보이도록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 있으세요.(신문을 들지 말고) 잠깐 동안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칭찬과 용기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부모 앞에서 글 읽는 것을 좋아하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읽기를 시작한 단계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아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를 기다리게해서 아이의 생각을 중단시키지는 않겠지요.

읽기를 시작한 단계에는 아이에게 낱말을 글자로 써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고요?

아이가 한 문구씩 보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듬이 없고 유창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아이에게 모르는 단어의 뜻을 즉각 알려주세요.

얼마가 지나서 아이는 대부분의 낱말을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은수마을21

올 곧은 소리

평화와 통일,

노동자가 책임질 때

조국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넘었다. 이대로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가.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각기 남과 북을 노리고 있다.

이 땅의 재벌들도 이윤을 찾아 교류에 적극적일뿐, 민족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잘 살수 있는 통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룩되면 인구 7천만, 인구밀도 1평방미터당 2백97명(현재 남한 4백39명, 북한 1백81명),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 등으로 볼 때, 지구촌이 깜짝 놀랄 복지대국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2021년 까지 1인당 GNP 2만5천달러, 2032년까지는 5만달러로 소득이 증대한다고 한다.

주한미군 분담금(2조5천억원), 방위비 50% 감축(연 5조5천억원)으로 무주택 노동자, 서민의 내집마련,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결식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지역탁아소, 교통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정치경제 사회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의욕을 높이는 한편, 과학기술 개발과 국토·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와 일부 언론이 북한 붕괴설과 흡수통일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태에서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린다면 북한체제가 경제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이 무너져서도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통일독일의 후유증의 몇배가 한반도에 엄습한다는 것이다. 남한노동자의 생활개선과 고용안정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동시에 북한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이 자본의 혹독한 합리화 조치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자 자신의 행복과 더불어 21세기 민족과 겨레의 희망을 위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누구도 이 일을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 **윤수마을21**

≤ 알아두면 좋아요 ≥

복지비계산 편차크지만 어쨌든 쥐꼬리 정부 예산 대비 때도 독일의 10%인 6%

국민총생산 대비 5% 복지예산 확보를 말하려면 현재 사회복지비 지출이 얼마인지부터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간단치가 않다. 지난해 교육비 5% 확보 때 논란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잡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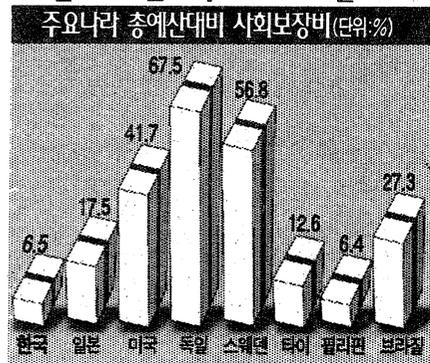
우선 복지부 예산통계로 보면 **올해 복지부의 세출예산은 2조3천7백 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0.6%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국가보훈, 근로복지등을 합친 사회보장비는 0.9%, 보건, 위생, 환경, 주택, 지역개발비등을 합친 사회개발비는 1.3%가 된다.

보건사회연구원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9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21%, 개인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비 전체는 3.69%에 이른다.

이처럼 구성요소에 따라 편차가 커 복지부는 국민총생산 대비보다 전체 정부예산 대비를 주요 예산지표로 쓰고 있다. **정부예산에 대비한 올해 사회보장예산은 6.1%로 △독일 67.5% △스웨덴 56.8% △영국 49.4% △미국 41.7% △브라질 27.3% △일본 17.5%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복지예산은 각 나라의 행정, 재정적 특성에 따라 그 범위와 집계연도가 달라 국내총생산 대비는 통계에 따라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비가 소득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지금과 같은 수준의 통상 증가율로는 쟀 걸음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윤수마을21



활기찬 하루를 위하여(건강교실)

간은 우리몸에서 제일 큰 장기이며, 신진대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간은 인체의 종합 화학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성물질의 해독, 각종 영양분의 합성과 저장, 담즙과 같은 소화효소의 생산등이 모두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간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간세포 파괴로 인해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같은 간효소 수치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 간 질환 *

【간질환의 분류】 간질환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성 간질환, 약물중독성'간질환, 종양성 간질환, 이차성 간질환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양상에 따라서 급성간질환과 만성간질환으로 분류합니다.

【간질환의 증상】 간질환의 발생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가렵다.
- ㉡ 소화가 잘 안되고 식욕이 없어지며, 자주 구역질이 난다.
- ㉢ 변비나 설사가 계속되고 대변의 색깔이 검다.
- ㉣ 소변색이 맥주나 콜라처럼 진하다
- ㉤ 윗배.오목가슴이 아프고 불편하다
- ㉥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며, 쉽게 피곤해진다.

【간 질환의 진단】 진단방법에는 크게 간기능검사, 항원.항체검사 등과 같은 혈액검사, 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과 같은 영상검사, 그리고 간 조직검사가 있습니다.

【만성 B형간염】 대부분의 만성 B형간염은 급성 B형간염이 만성화 되면서 발생하지만, 간혹 건강보균자에서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만성 B형간염에 걸리면 환자의 30~50%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합니다.

만성 B형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성 B형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급성 B형간염에 걸리지 않든가,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 ㉦ 모든 사람은 B형간염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 개인용 칫솔이나 면도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간염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되도록 피합니다.
- ㉩ 약물, 한약 등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지방간】 정상적으로 간에는 3~

5%정도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에서의 지방합성이 촉진되어 다량의 지방이 간에 축적됩니다. 이때 계속 알코올을 섭취하면 지방간은 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간은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지방간으로 진단을 받으면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의 식이요법과 금주, 적절한 운동 등을 병행하여 지방간의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인 경우 간세포에 다량의 지방이 축적되어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지방간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간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치로 나올때까지 술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칙적인 운동은 지방간의 위험을 줄여 줍니다.

【간경변증】 간은 재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간조직이 파괴되면 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파괴-복구의 과정이 반복되면 끝내 간조직은 섬유소 등의 결체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 간세포를 찾아볼 수 없으며, 간자체는 주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이를 간경변증이라고 합니다. 간경변증에 빠지면 원상태의 회복이 불

가능합니다.

간경변증을 일으킬수 있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성간염, 특히 만성 B형간염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알코올, 담즙의 정체 등에 의해서도 간경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은 일반적인 간질환의 증상외에도 배에 물이 차거나(복수), 팔, 다리가 붓는(사지부종) 증상을 나타냅니다. 간경변증이 진행되면 식도에 있는 혈관이 끊어지고(식도정맥류), 이 혈관이 터지면 심한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경변증 환자는 쉽게 세균에 감염이 되고 몸안에 있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므로 혼수에 빠지기도 합니다(간성혼수).

대개 이러한 합병증은 한번 나타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간경변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간이나 만성 B형간염등의 간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간질환에 걸리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로와 과음을 피하고, 고단백 영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끝으로 약물의 복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음수비율2

◆ 時 感 上 ◆

아픔의 뿌리

- 박 노 해 -

침묵이 말을 한다

- p씨 -

때로 침묵이 말을 한다.
사람이 부끄러운 시대
이상이 몸을 잃은 시대에는
차라리 침묵이 주장을 한다.

침묵으로 소리치는 말들,
말이 없어도 귓속의 귀로
마음속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목숨의 말들

아 피물은 흰옷을 찻촉하여라
아직 말을 구하지 못한 이 백처울음
그러나 살아있는 가슴들은 알지
살은 불을 잉태하고 있다는 걸

진실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침묵 속에 익어가고 침묵 속에 키워지고
마침내 긴 침묵이 빛을 터트리는데
푸른 사람들, 소리치며 일어설 것이다.

침묵이 말을 한다.
침묵이 말을 한다.

내가 교사였을 때
제법 목에 힘도 주고 봉투도 받아가며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이었다.
나는 노동자입니다 하는 순간
아이들 눈앞에서 이념, 저놈, 불순분자,
줄줄이 고개 쳐박고 기차놀이 해야 했다.

내가 간호사였을 때
백의의 천사님 순결한 나이팅게일
다 좋지만 우리도 먹고 사는 노동자 하는
순간 졸지에 환자 생명을 인질로 삼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짓밟여야 했다.

내가 지식인이었을 때
빛나는 화이트칼라 전문가 예술가로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무시못할 존재였다.
내가 노동자 나서자마자 세상에,
공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집단이라며
무차별 진압 대상으로 내몰려야 했다.

노동자가 뭐길래 자본이 뭐길래
우리 노동자 되는 순간 이렇게 깨지는가
아픈 존재여, 존재의 아픔인 노동자여-
아 나의 뿌리는 숨길 수 없는 노동자,
짓밟으라 깨부수라 실없는 환상과 껌대기
를 거기 그 자리에서 파랏파랏 성난 새싹
은땀으로 일어서서 거대하게 일어서서
이땅의 불행과 슬픔,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

운수따올21



산으로 바다로 “출발”

산행은 뱃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돈지

한려수도 한눈에... 섬 山行 만끽

사랑도 지리망산

지리망산은 맑은 날이면 지리산(1천9백15m)이 바다다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사천시(구 삼천포) 앞바다는 해무(海霧)가 자주 끼기 때문에 지리망산에서 지리산을 보기는 쉽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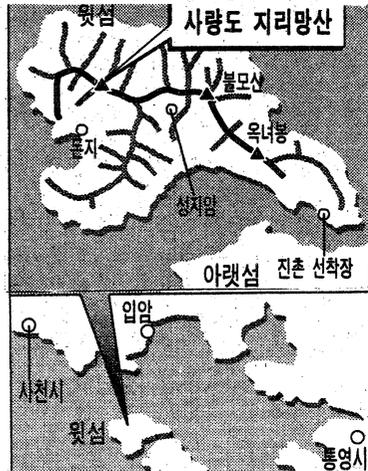
사천시에서 사랑도의 돈지선착장까지는 뱃길로 45분 거리.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뱃길여행은 지리망산 산행이 주는 또 하나의 보너스다.

정상에 오르면 어머니 가슴처럼 모든 것을 감싸안은 다도해가 펼쳐진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에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수석처럼 생긴 섬사이를 빠져나가는 배들도 마냥 한가롭게만 보인다.

산행코스는 돈지~지리망산~불모산(3백99m)~옥녀봉(2백81m)~진촌으로 이어진다. 해발 4백m도 안되지만 5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꽤나 까다롭다. 그러나 위험구간에는 로프가 설치돼 있어 주의만 하면 별 어려움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양옆이 벼랑인 암릉 과 숲길을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연이어 있다. 로프를 잡고 10여m의 암벽을 올라야 하는 옥녀봉은 짜릿함마저 느끼게 해준다.

에서 시작한다. 돈지초등학교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30분정도 오르면 주능선에 닿는다. 다도해 장관이 한눈에 다가온다

이곳부터 지리망산까지는 1시간 거리. 불모산을 거쳐 옥녀봉까지는 중간중간에 좁고 날카로운 바윗길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전체가 하나의 바위인 옥녀봉에 오르기 어려운 사람은 옥녀봉 바로 못미쳐 우측으로 난 길 따라 하산하면 된다.



▶교통편 : 사천시~돈지까지 일신호[(0593)835-0872]가 매일 오전6시 30분과 오후2시30분에 운항된다. 금평~입암(경남고성군하일면)까지 다리호[(0556)73-0529]가 오전7시~오후7시 7편 운행된다. 30분 소요된다. **운수마을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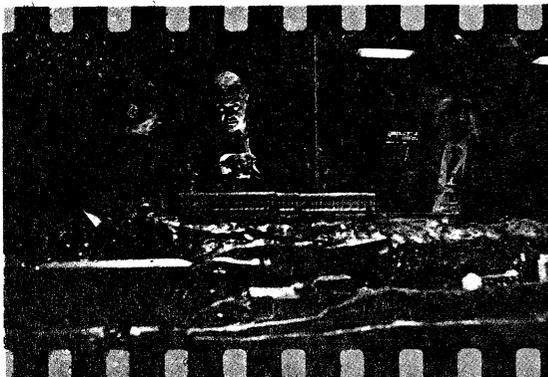
☒ 문화가 산책 ☒

♣ 이달의 추천영화

땀방울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액션영화
마이클 베이 감독의

더 락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어디일까?



대답은 샌프란시스코이다.

샌프란시스코 관광 코스에 빠짐 없이 등장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알카트로즈 섬이다. 30년대의 전설적인 갱인 알 카포네가 수감되기도 했던, 탈출이 불가능한 섬 알카트로즈.....<더 락>은 알카트로즈 감옥을 소재로, 테러단과 그들을 진압하려는 미특공대의 대결을 긴장감있게 그리고 있다.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 허멜 장군(애드 헤리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극비작전을 수행하던중 전사한 부하들의 유족들에게, 미 정부가 상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알카트로즈 섬을 점령하고 관광객들을 인지로 억류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화학무기로 위협한다.

미 정부는 테러집단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공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기로 한다. 그러나 섬에 잠입한 특공대는 테러단에게 발각되어 전투끝에 사살당한다.

더 락(The Rock)이라고 불리워지는 **철옹성의 암반요새 알카트로즈**를 탈옥한 유일한 생존자는, **존 메이슨(손코네리)**. 미 정부는 그에게, 특공대가 섬을 침투할 수 있도록 **척후병의 역할**을 맡긴다. 여기에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생화학무기 전문가 스텐리(니콜라스 케이지)**가 동행한다.

왕년의 제임스 본드, 손 코네리를 앞세운 특공대와 테러단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영화의 후반부를 장식하는데, 영화가 끝날때까지 관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장쾌한 액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확실히 액션 영화에는, 가슴 속에 쌓인 온갖 찌꺼기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힘이 있다. 백전노장 손 코네리의 노련한 연기와, 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연기파 니콜라스 케이지가 뛰어난 연기 앙상블을 보이며 관객들을 흡인하지만, 테러단 우두머리로 나오는 에드 헤리스의 카리스마 있는 연기도 관객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손 코네리의 탈주장면에 등장하는 카체이스도 불만하다. 굴곡진 도시의 특징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한 영화 속에서는 자동차 추격장면이 양념처럼 등장하는데, <더록>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재미 있다. 험비와 노란색 페파리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샌프란시스코를 벌집 쭈시듯이 뒤집어 놓으면서 여름더위를 물리칠 시원한 액션 장면을 보여준다.

<더록>은 테러단과 진압부대라는 전형적인 대결 구도를, 지명도있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긴장감을 극대화시킨 감독의 연출력으로 극복하면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 화 관			
영 화	상영관	전 화	등 급
굿바이 마이 프렌드	국 도	266-1444	□
채널식스나인, 더록, 히트	명보프라자	274-2121	★, ○, ★
인디펜던스 데이, 스파이 하드	서 울	277-3011	□, ○
더록	피카디리	765-2245	○
채널식스나인, 더록, 드래곤하트	씨네하우스	545-2813	★, ○, ○
인디펜던스데이, 화이트스쿨, 히트	동 아	522-6111	□, ○, ★
채널식스나인, 인디펜던스 데이	롯데월드	417-0211	★, □
플루크	헐리우드	745-4231	
스투퍼드	단성사	764-3745	□
더록	씨 티	561-3388	○

연소자 구분 ★불가 ○고가 ▲중가 □연가

※ 연극 공연

< 대학로 >

- £. 비언스= 9월 25일까지(오후4시30분-7시30분, 월 쉼)T. 745-0745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97년 3월 2일까지(오후4시30분-7시30분)
- £. 빨간피터의고백=무제한 공연(오후4시30분-7시30분. T. 741-0083)
- £. 지하철1호선=9월20일까지(평일 7시30분, 주말3-7시, T. 763-8233)

【 운수마을21 광고마당 】

※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운수마을21 편집부에서는 조합원들의 교양 함양과 철도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운수마을21』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운수마을21은 현장의 소식지로서 편집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수분야의 현장소식과 나의제안, 미담사례, 수필, 시, 콩트 등 편집실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글이나 자료는 책을 소개한 이에게 주십시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채택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편집후기

헝살로 송편을 빚어서 차례를 지내고

벌초와 성묘를 하는 풍요로운 달 9월 -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한가위는 1년중 마음이

가장 넉넉해지는 때입니다.

불철주야 만든바 책임을 완수하고 계신는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편집부에서 기원합니다.

부디 이번 추석은 고향에서

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는 마음으로 운수마을21을 애독하기 바랍니다.

편집부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집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조금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호는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운수마을21

